

환경·에너지공학과 강민지 학부생, 한국화학공학회 우수 성과

- 한국화학공학회 제21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전국 회장으로서 1년간 임기 수행
- 전국 화학공학 관련 우수 학생들이 모인 학회 워크숍에서 금상 수상... "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"



▲ 환경·에너지공학과 강민지 학사과정생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환경·에너지공학과 학사과정의 강민지 학생(지도교수: 강성봉)이 **한국화학공학회 제21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전국 회장으로** 임명되었다고 밝혔다.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.

국내 화학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한국화학공학회는 **차세대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**

강민지 학생은 "한국화학공학회의 동아리 신임 회장으로서 **전국 대학 화학공학 동아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학술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**"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강민지 학생은 화학공학회 주관 **전국 화학공학 학과 및 동아리 회장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.**

환경·에너지공학과 관계자는 "이번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학생 리더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"며 "**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**"고 말했다.

한편, 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**대기, 물,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연구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.** 주요 연구 분야로는 **대기·생태·지구과학, 물과학 및 물공학,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중점**을 두고, 혁신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.